

“특별자치도법 의미있는 성과 도출”

도의회 특위,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 “본회의 통과하기까지 국회 방문 면담 비롯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 다해 볼 것”

전북 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희수·사진)는 28일 전북도의 최대 현안중 하나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심사 통과를 크게 환영했다. 전북도의회 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

별위원회는 지난 제394회(2022년 9월) 정례회를 기점으로 활동을 시작했고, 지난 10월에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국회차원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의 이채익 위원장과 유석조 수석전문위원, 도내에 연고지



를 둔 정운천·한병도·이용호·안호영·양경숙 국회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병계 국회의원 등을 면담하며 법안 통과 협조를 부탁하는 등 열정적인 활동을 벌여왔다. 28일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은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12월 1일), 법사위, 본회의 등의 후속 절차만 남겨두고 있어 연

내 처리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셈이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김희수 위원장은 “여야의 대치 정국 속에서 도내 국회의원들의 비롯한 정치권이 혼연일체가 되어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상임위 통과를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했다”며 “특별법이 최종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고삐를 늦추지 않고 국회 법사위원 방문 면담을 비롯해, 도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굳은 결심을 내보냈다.

/김경수 기자

익산시의회 정례회 개최

익산시의회(의장 최종오)가 28일 제 248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오는 12월 20일까지 23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 △2022년 결산추경안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각종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의하게 된다.

의원발의의 조례안은 9건으로 익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장경호 의원), 익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김경숙 의원), 익산시 창업 지원 조례안(김진규 의원), 익산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철원 장경호 의원), 익산시 제설장비 관리·운영 조례안(김미선 의원) 등이다.

이어 조규대 의원, 박철원 의원, 김미선 의원, 한동연 의원, 조은희 의원, 신용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최종오 의장은 “내년 예산안이 민생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에 맞게 잘 반영되었는지, 재정 현실을 고려하여 낭비 요인은 없는지 세밀하게 살펴 우리시의 재정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앞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우수부서로 선정된 3개 부서(문화유산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에 대해 표창패를 수여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고창군의회,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중지 등 결의안 채택

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는 28일 개최된 제20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중지 결의안과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개편 철회 촉구 결의안’을 각각 채택했다.

한빛원전 4호기는 2017년 5월 계획에 반정비 중 원자로 격납건물 내부철관과 콘크리트 사이에서 다수의 공극과 부식 현상이 발견되어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1월 22일 정기감사를 통해 한빛 4호기 격납건물 내부철관 부식 및 콘크리트 공극에 따른 구조건전성 평가 허용치 이내로 유지되고 있다고, 오는 30일에 한빛4호기 건설 상정해 12월 1일에 재가동할 계획이다.

이처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한빛 4호기에 대해 제대로 된 전수조사 없이 일부반만을 조사한 채 방사능 유출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내부철관과 콘크리트 사이에서 다수의 공극과 부식 현상이 발견되어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다.

이와 관련 논의는 결의안을 통해 △제대로 된 전수조사 없는 부실부설이 한빛 4호기의 재가동 추진 절차 중 단 △한빛 4호기 현안 문제에 대해 고창군민의 실질적인 참여 보장 △원전 가동·운영 전 제대로 된 실태 설명 및 지역·동민의 확인 등을 촉구했다.

지난달 6일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 한 것과 관련 논의는 결의안을 통해 △전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안 즉각 철회 △여성가족부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군지역위원회는 지난 26일 진안군 산악초터 2층 세미나실에서 제9차 확대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민주당 지역위원회 최초로 이태원 참석 책임자 처벌과 윤석열 정부 검찰독재 분쇄를 위한 특별 결의도 채택했다.

지역소멸 문제·지역 현안 해결방안 제도 도입 논의

민주 완주·진안·무주·장수지역위 확대운영위원회

이태원 참석 책임자 처벌 등 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

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군지역위원회(위원장 안호영 국회의원)는 26일 진안군 산악초터 2층 세미나실에서 제9차 확대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특히 민주당 지역위원회 최초로 이태원 참석 책임자 처벌과 윤석열 정부 검찰독재 분쇄를 위한 특별 결의도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역위원회 위원장인 안호영 국회의원, 여태권 상임고문, 이희창 수석부의장을 비롯한 운영위원과 완주·진안·무주·장수지역위원회 소속 도의원 및 군의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가운데 1부 보고 및 회의와 2부 정책토의 순서로 나뉘어 진행했다.

안호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범국민 서명운동에 124만여 명의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완주·진안·무주·장수지역위 지역별 서명자 수 전국 1위에 올라 기업을 토했다”라며 “남다른 지역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온 지역위의 단결된 힘으로 풍요롭고 잘사는 고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1부에서는 의정활동 및 지역위 당무를 보고하고 “읍면협의회 및 상설위원회 구성과 활성화 방안”,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또 2부에서는 “채생애까지 기본소득 추진”을 주제로 지역소멸 문제와 지역 현안의 해결방안을 위한 제도의 도입 방법과 우려점 등을 두고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이 펼쳐졌다.

이중 ‘10.29 참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윤석열 정부 검찰독재 분쇄를 위한 특별 결의’의 건은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목했다. 지역위에 따르면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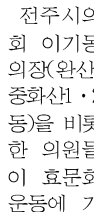
번 결의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정부와 여당의 협조가 불투명하고 윤석열 정부가 민생경제를 위대한 채 야당파괴를 위한 전방위 정치 탄압에 골몰하는 상황에 대한 일갈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라 준비됐다.

지역위는 특별결의문에서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은 10·29 참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는 관심이 없고 야당탄압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또한, “경제위기를 극복할 의지도 능력도 없어 무능과 무지를 가리기 위해 야당탄압과 검찰독재의 칼춤 추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안호영 위원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이태원 당대표와 야당에 대한 탄압을 극복하고 국민과 함께 검찰 독재를 분쇄할 것’이라며 “역사는 오늘의 특별 결의와 단합된 실천을 높이 평가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효(孝)문화 활성화 공로 인정

전주시의회 이기동 의장, 의정부문 효행대상 이병하 부의장·최지은 의원, 공로상 수상



이기동 의장

이병하 부의장

최지은 의원

전주시의회 이기동 의장(완산, 중화초·2동)을 비롯한 의원들이 효문화 운동에 기여한 공로로 효행대상과 공로상을 수상했다.

지난 25일 열린 제18회 효 문화 활성화를 위한 부모님감사 한마음대회에서 (사)전북노인복지문화연구원(총재 소순갑)은 이기동 의장에게 의정부문 효행대상을 이병하 부의장(우애·2, 호성동)과 최지은 의원(덕진, 팔복, 송천2동)에게는 효문화 운동 공로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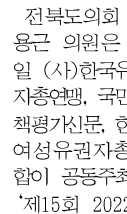
소순갑 총재는 “이기동 의장과 시의원들이 올바른 의정상 정립과 시민들의 효행실천을 위한 남다른

열정을 보였으며, 그동안 효실천 합심사업에 기여한 공을 높이 평가해 효행대상과 공로상을 수여한다”고 전했다.

수상자들은 “과분하게도 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효문화 확산과 노인복지정책 확대를 위해 더욱더 노력해 달라는 의미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100세시대 실버 노인층 제도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박용근 도의원, 3년 연속 유권자총연맹 의정활동 평가 대상



박용근 도의원, 3년 연속 유권자총연맹 의정활동 평가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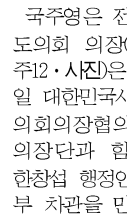
박용근 도의원, 3년 연속 유권자총연맹 의정활동 평가 대상

한국유권자총연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법인으로 매년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평가하여 대상 의원을 선정, 시상하고 있다.

박용근 의원은 전북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북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북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전북지역 기업 및 산업 증진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경수 기자

“지방의회 역할·기능 강화 실질적인 제도 개선 통해”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의장단-행안부 차관, 정책간담회



박경연 의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의장단-행안부 차관, 정책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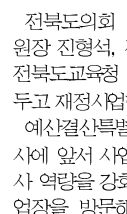
박경연 의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의장단-행안부 차관, 정책간담회

의회의 목소리를 담아 행정안전부에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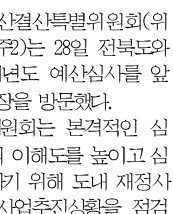
박경연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었으나 여전히 단체장 위주의 지방자치 체제로 인해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미흡하다”며 “지방자치시대로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선 지방의회의 조직권·예산편성권이 함께 보장돼야 하며 정책지원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기자

군산조선소 재가동 의회 차원 협력 약속

도의회 예결특위, 군산조선소 등 재정사업현장 찾아 현장활동



박경연 의장, 군산조선소 등 재정사업현장 찾아 현장활동



박경연 의장, 군산조선소 등 재정사업현장 찾아 현장활동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경희, 전주)는 28일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 내년도 예산심사를 앞두고 재정사업현장을 방문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심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내 재정사업장 방문해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전북도와 교육청은 각각 9조5857.9억원, 4조3787.9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제출한 상태로 이는 전년 대비 총액 7.574억원(8.32%), 도교육청은 8.161억원(21.1%) 증액된 규모이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22~25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28일부터 본격적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시작된다.

먼저 방문한 군산용북합미레교육센터는 미래사회의 핵심기술인 AI, 로봇, AR·VR, 3D프린팅, 코딩 등을 학생과 도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곳으로 올 6월에 개원했다. /김경수 기자